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9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11월 10일 / 등록번호 영등특간00593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칠원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인 / 디자인 인쇄소 북평소, 더스포트즈 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11.10 / 제9호

MATCH PREVIEW

순위 경쟁의 분수령,
대전을 상대로 필승을 다짐한 인천
시즌의 마침표를 찍는 원정 경기,
대구와의 최종전에 운명을 건다

BLUEMAN INTERVIEW

‘낭만의 새나비’ 요니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커리어 최고의 경기장이다”

ROOKIE INTERVIEW

‘떠오르는 게임 체인저’ 김현서,
남은 경기 목표는 전승,
팀에 도움 주고 싶다



INCHEON UNITED 2024 SQUAD

최영근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현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1 백민규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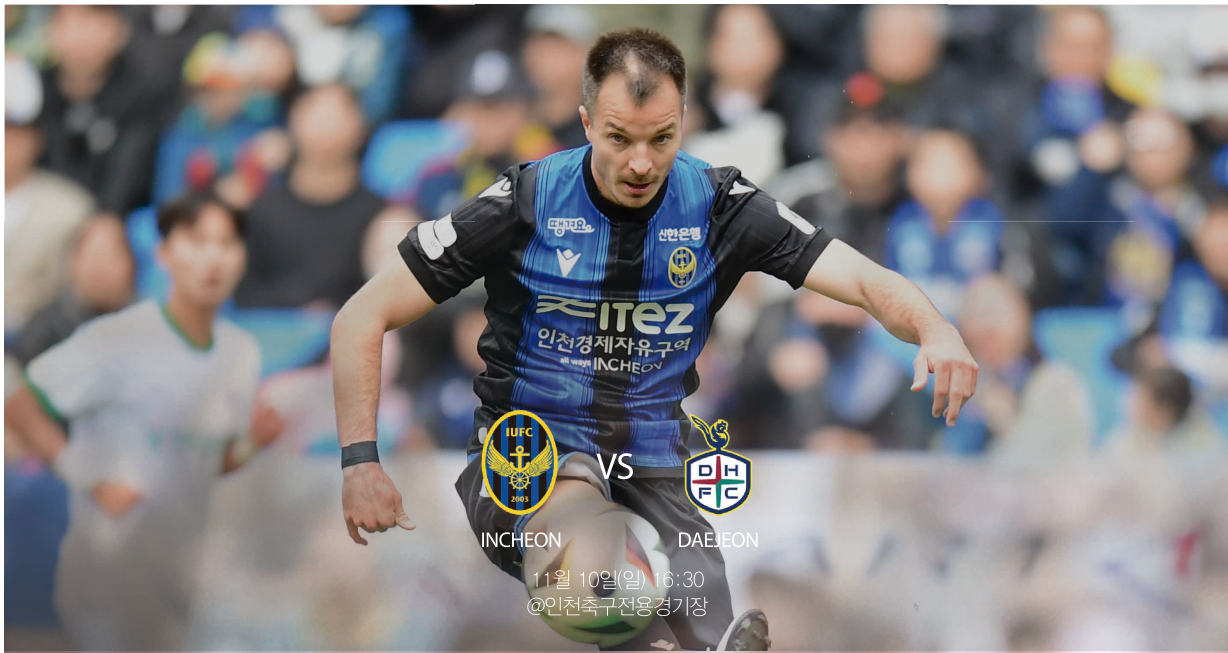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2	광주 : 인천	3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0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1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17일(수) 19:00	1	인천 : 김해시청	0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21일(일) 14:00	4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09R	04월 28일(일) 14:0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10R	05월 01일(수) 19:00	3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0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2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1	인천 : 서울	2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0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3	수원FC : 인천	1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2	전북 : 인천	2	전주월드컵
18R	06월 19일(수) 19:00	0	인천 : 김천	0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23일(일) 18:00	1	인천 : 포항	3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6일(수) 19:30	1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20R	06월 30일(일) 19:00	0	인천 : 강원	1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5일(금) 19:30	1	인천 : 김천	1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9일(화) 19:30	0	대구 : 인천	0	DGB대구은행파크
23R	07월 14일(일) 19:00	0	광주 : 인천	2	광주축구전용
24R	07월 17일(수) 19:00	1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축구
24R	07월 21일(일) 19:00	1	인천 : 수원FC	4	인천축구전용
25R	07월 27일(토) 19:30	0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26R	08월 10일(토) 19:30	0	제주 : 인천	1	제주월드컵
27R	08월 17일(토) 19:30	2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28R	08월 24일(토) 19:30	0	인천 : 전북	1	인천축구전용
29R	08월 31일(토) 19:30	1	대구 : 인천	2	DGB대구은행파크
30R	09월 1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0	김천종합
31R	09월 22일(일) 19:00	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32R	09월 27일(금) 19:30	1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33R	10월 06일(일) 15:00	1	인천 : 강원	3	인천축구전용
34R	10월 19일(토) 16:30	1	인천 : 제주	2	인천축구전용
35R	10월 27일(일) 16:30	1	인천 : 광주	0	인천축구전용
36R	11월 02일(토) 14:00	0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37R	11월 10일(일) 16:30	인천 : 대전	인천축구전용		
38R	11월 24일(일) 14:0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DAEJEON PREVIEW

순위 경쟁의 분수령, 대전을 상대로 필승을 다짐한 인천

글 = 이지우 UTD기자 (jw2000804@naver.com)

어느덧 정규 시즌도 끝을 앞두고 있다. 인천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상대는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팀, 대전하나시티즌이다.

현재 기준으로 리그 9위인 대전은 8월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8월에 2승 1무, 9월에 2승 1무 1패, 10월에 2승 1패를 거둔 대전은 승점 차를 좁히면서 강등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또 다른 경쟁자인 제주유나이티드에 패배하면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북현대모터스와 대구FC를 상대로 연승을 거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대전은 여름이적시장에 가장 많은 선수를 영입한 K리그 팀이었다. 임대 및 완전이적으로 10명을 영입했고, 김재우가 김천에서 전역하면서 총 11명이 스쿼드에 추가됐다. 그중 김문환, 마사, 최건주, 김현욱, 밥신 등은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반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름에 시도한 변화가 맞아떨어지면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은 셈이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은 최근 4-4-2 포메이션을 자주 쓰고 있다. 다만 정통 스트라이커인 구택이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결정하는 중이고, 천성훈이나 김승대 등 다른 공격 자원들도 기회가 많이 줄었다. 대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미드필더 김준범, 마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칙적인 공격진을 구축했다. 시즌 초에는 득점이 나오더라도 집중력, 뒷심 부족으로 실점하는 일이 잦았던 대전이지만 최근에는 수비진이 비교적 안정화됐다.

인천은 대전과 정반대로 여름에 보강을 진행하지 않은 팀이었고, 오히려 인천 소속이었던 천성훈이 대전으로 이적하기도 했다. 상반된 선택을 한 후 인

천은 후반기 내내 고전했지만, 광주FC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최영근 감독이 온 후 인천은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지만, 팀에 완벽히 입혀지지 못했다. 결국 파이널 라운드에 진입한 후 인천은 선수단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훨씬 익숙했던 쓰리백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그와 동시에 전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도 보여줬다. 다만 시즌 초에 쓰던 쓰리백과 비교해 보면 중원 경쟁에 더욱 집중하고, 3-5-2로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3-4-3으로 바꾼다는 차이점이 있다.

팀의 열쇠로 꼽을 수 있는 선수는 미드필더 문지환이다.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특유의 파이터 기질과 빌드업 능력으로 중원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문지환이 돌아온 후 중원의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김도혁, 이명주도 체력적 부담을 덜고 한결 가벼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대전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인천이지만, 마지막으로 대전을 상대로 8월 원정에서 통탄의 패배를 거뒀다. 인천은 올 시즌 대전을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열세로 볼 수는 없지만, 대전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인천의 남은 일정은 전부 순위 경쟁자와의 '승점 6점'을 건 경기밖에 없다.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인천은 대전을 상대로 필승을 각오하고 있다.



vs DAEGU PREVIEW

시즌의 마침표를 찍는 원정 경기, 대구와의 최종전에 운명을 건다

글 = 이지우 UTD기자 (jw2000804@naver.com)

대전과의 홈 경기를 마친 후 인천은 시즌 최종전을 치르기 위해 원정을 떠난다. 인천의 마지막 상대는 대구FC이다.

대구 36R 기준 리그 10위 팀이다. 시즌 내내 상승세와 하락세를 오갔던 대구는 극초반의 부진은 털어냈지만 아직 강등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9월 이후 기준으로는 2승 3무 1패를 기록했는데, 승리한 경기는 4득점을 몰아쳤지만 그 상승세가 꾸준하지는 않았다. 특히 결정적인 경기였던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한 점이 치명적이다.

시즌 초 최원권 감독 체제로 리그 일정에 돌입했던 대구는 부진이 이어지면서 4월 중순에 박창현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다. 한편, 여름에는 밥신이 대전으로 떠났지만 이탈로, 카이오, 이찬동, 정치인(전역) 등이 합류하면서 어느 정도의 보강도 이루어졌다.

대구 36R 기준 리그 10위 팀이다. 시즌 내내 상승세와 하락세를 오갔던 대구는 극초반의 부진은 털어냈지만 아직 강등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9월 이후 기준으로는 2승 3무 1패를 기록했는데, 승리한 경기는 4득점을 몰아쳤지만 그 상승세가 꾸준하지는 않았다. 특히 결정적인 경기였던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한 점이 치명적이다.

대구의 공격이 세징야에게 크게 의존한다면, 인천은 무고사를 향한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36R 기준 인천은 리그 34득점에 그치면서 득점 부문 리그

최하위에 있지만, 무고사는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오르면서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다. 무고사는 2024시즌 리그에서 15득점을 기록했고, 페널티킥을 제외해도 11득점을 올리면서 압도적인 실력을 입증했다.

무고사의 존재감이 워낙 컸던 인천이지만, 제르소가 부상에서 복귀한 후 차츰 폼이 올라오면서 의존도를 분산할 실마리를 찾았다. 최근 무고사, 제르소의 투톱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인천은 제르소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중요한 기회를 전보다 많이 잡고 있다. 그리고 제르소의 존재 덕분에 무고사도 집중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 결국 대구 입장에서는 무고사와 제르소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은 올 시즌 대구를 상대로 1승 2무를 거두면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진 못했고, 승리한 경기도 전반전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작은 차이가 경기 결과는 물론 리그의 결과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구와의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하다.

인천은 작년 38라운드에서 대구 원정을 떠나 패배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 패배로 인해 5위로 마치면서 시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천 선수단은 하나로 다시 뭉쳤다.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인천은 최고의 기량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낭만의 사나이' 요니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커리어 최고의 경기장이다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사진 = 오석근 작가 (punchandjudy@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바로 '낭만'이다. 인천에는 낭만을 몸소 실현한 자가 있다. 20대 중반에 K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우뚝 선 이 선수는 한국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뛰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이제 30대 가장이 된 그는 8년 전 인천 팬들에게 했던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인천 유니폼을 입었다. 8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2024년에도 인천 수비를 이끌며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요니치가 그 주인공이다. UTD기자단은 인천 팬들에게 '낭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 요니치를 송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니치의 인천생활

무고사, 김도혁, 이범수에 이어 네 번째 매거진 표지 화보 모델이 되었다. 촬영 소감이 궁금하다.

매거진 표지 모델이 되어 촬영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운 촬영이었다. 함께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재미있게 촬영했다.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새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어본 적은 많다. 이러한 촬영은 보통 실내에서 유니폼을 입고 했었다. 이번 화보처럼 야외에서 전문 사진 작가님과 촬영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화보 촬영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좋은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다.

촬영 동안 바닷물에 반사된 햇빛을 마주하는 장면이 많아서 힘들어 했다. 눈은 괜찮은가?

햇빛 때문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 눈은 괜찮다. (웃음)

요니치 이전에 무고사, 김도혁, 이범수가 매거진 화보 모델로 나섰다. 다른 선수들의 화보 사진은 본 적이 있는가?

세 선수의 화보 모두 봤다. 다 멋있고, 내 마음에 들었다. 아마 세 선수도 야외 화보 촬영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더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팬들도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먼저 촬영한 선수들에게 촬영 관련 팁은 받았나?

따로 선수들에게 촬영 관련해서 팀을 물어보지는 않았다. 모두 재미있게 촬영했다고 전해 들었다. 다만, 무고사, 김도혁 화보는 한여름에 진행했다고 들었다. 무고사는 인천공항 안에서 찍었다. 나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다. 나는 날씨가 시원해지고 나서 촬영했다. 물에 비하면 나는 운이 좋았다.

이번 촬영에 입은 사복 패션 콘셉트는 무엇인가?

사실 평소애 자주 입는 복장은 아니다. 이번 촬영을 위해 이렇게 착용했다.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오늘 패션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시아에서 보내는 10번째 시즌이다. 처음 아시아에 왔을 때, 이렇게 오래 아시아에서 뛸 줄 알았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시아 리그에서 이렇게 오래 뛸 계획은 없

었다. 그렇지만 아시아 클럽들과 인연이 계속되었다. 한 시즌, 한 시즌을 보내다보니 여전히 나와 우리 가족들 모두 이렇게 아시아에서 꼭 살고 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크로아티아,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경험했다. 그중 특히 인천 송도라는 곳은 어떤 분위기고, 어떤 매력이 있는가?

크로아티아를 떠나서 처음 타지에서 정착한 도시가 인천 송도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센트럴 파크뿐만 아니라 근사한 레스토랑과 카페도 있고, 돌아다니기도 편하다. 매력이 많은 도시다.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있다. 송도에서 자주 가는 장소는 어디인가?

송도에 아울렛, 상점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아울렛에 간다. 센트럴 파크도 가끔 간다. 식당도 가고, 산책도 한다. 송도에 사는 외국인들은 다 같은 장소에 가는 것 같다. 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8-9년 전 송도와 지금의 송도의 차이가 느껴지는가?

물론이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다.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크다. 새로운 빌딩도 많이 지어졌다. 송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한 것 같다.

평소 훈련과 경기 외에 어떻게 지내는 지 궁금하다.

보통 오전에 훈련을 마치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또, 인천과 한국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많다.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는 것이 내 일상에서 가장 큰 재미 중 하나다. 좋은 지인들이 많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무고사네 가족이 그렇고, 음포쿠, 제르스, 델브리지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뛸 때 만난 분들이나 축구 외적으로 알게 된 친구들도 있다. 9년 전 처음 인천에 왔을 때 만난 지인들도 있다. 훈련, 경기가 없을 때 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나에게 큰 즐거움이다.



인천 외국인 선수끼리 사이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선수들과 어떻게 지내나?

선수들도 사이가 좋지만 가족들끼리도 자주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다. 시간될 때 같이 저녁도 먹고, 재미있는 대화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같은 센터백인 델브리지와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쉽게도 올해 델브리지 선수와 같이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다. 그래도 같이 뛸 때는 확실히 언어가 통하다 보니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잘 되어서 만족스럽다. 수비수가 해야 하는 것들을 서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 이번 시즌이 몇 경기 남지 않았지만, 같이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선수는 누구인가?

누구 하나와 친하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소통하려고 한다. 한국인 선수들과는 주로 우리 팀에 관련된 축구 전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내가 일본에서 뛴 적이 있어서 몇몇 선수들은 J리그는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장거리 원정 가면서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보통 기차나 버스 안에서 내 아이폰드를 꺼내서 본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요니치와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우기 직전이다. 이 기록은 요니치 선수에게 어떤 의미인가?

선수로서 K리그 100경기 출전이라는 기록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것 같다. 3시즌을 뛰면서 100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팀을 위해 기여했다는 뜻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K리그에 8년 만에 복귀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리그의 분위기나 수준, 템포 등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8년 동안 리그의 수준이 확실히 많이 높아졌다. 이전과 비교하면, 더 많은 팀이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고 있다. 트레이닝 방식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오랜만에 느껴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분위기는 8년 전에도 그랬듯 언제나 환상적이다. 경기를 뛸 때마다 팬들이 보내주는 열렬한 응원과 에너지가 항상 느껴진다. 그래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내가 지금까지 뛰었던 최고의 경기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천 구단은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진 것 같은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클럽하우스가 생겼다는 점이다. 새로 지어져서 시설도 좋다. 특히 체육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훈련 전후로 보강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반대로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다면?

축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상당히 길게 느껴진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래도 지금 인천에 송시우 선수나 김도혁 선수처럼 8년 전에도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몇 명 있다. 몇몇 스태프들과 직원들 중에서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이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바뀌었다.

인천에서 보낸 3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

최고의 순간은 단연코 2016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38R 수원FC전)이다. 1년 동안 감독님, 코치님, 지원스태프, 선수들 모두가 많이 고생한 끝에 최종 라운드에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 지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리고 많은 팬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기쁨을 나눴다. 그 장면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이번 여름에 팀 K리그에 선발되어 토트넘 홋스퍼와 경기를 치렀다. 다른 팀 선수들과 함께 세계적인 빅클럽을 상대했던 소감이 궁금하다.

한국에서 만든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었다.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나 혼자만 K리그 올스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팀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뛰었다. 토트넘 홋스퍼처럼 유럽의 빅 클럽과 경기를 치를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절대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가 될 거 같다.

올 시즌 현재까지 득점 기록 중이다. 센터백이지만 가끔 골 욕심이 나는가?

재밌는 질문이다! 그렇지만 골 욕심이 나지는 않는다. 수비수로서 우선 순위는 당연히 실점을 막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경기를 뛰려고 한다. 그래도 세트피스에서는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팀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올해 인천은 감독 대행을 포함해 두 번이나 감독을 교체했다. 그에 따라 수비 대형에도 변화가 있었다. 센터백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최영근 감독님이 부임하신 이후 포백으로 전환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적응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포백의 중앙 수비수로 주로 뛰었기 때문에 스리백이든 포백이든 큰 차이 없이 둘 다 익숙하게 느껴진다.

세레소 오사카에서 세코 아유무, 마이쿠마 세이아처럼 유럽에 진출한 젊은 일본 수비수들과 뛰었다. 지금 인천에서는 최우진, 김건희 등 한국의 유망한 수비 유망주들과 뛰고 있다. 이들의 기량은 어떤가?

최우진, 김건희 선수 모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잠재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도 아직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무대로 나아가기 전에 더 배우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축구 선수로서 유럽 리그에 진출해 경기를 뛰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수비진에 오반석, 권한진, 김준엽처럼 요니치 선수보다 나이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다. 이들의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 팀 베테랑 선수 모두 K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팀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훈련장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팀의 성장에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

더 성장한 인천을 기대하고 복귀했지만, 올해 인천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에 실망감을 느끼는가?

시즌 시작 전에는 분명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전지훈련부터 준비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불운하게도 다시 한 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부 리그에 잔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33R 강원FC전에서 불행하게도 퇴장을 당했다. 그 경기 이후 퇴장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분명 큰 실수였다. 좋지 못한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갔다.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퇴장을 당해 아쉬웠다. 이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워 나가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팀의 위기 상황에서 퇴장 징계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가장 뼈아프고, 죄송스럽다.

어떤 선수로 인천에 기억되고 싶은가?

나 스스로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싶다. 아마 인천 팬분들 각자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를 기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팬들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볼 팬 분들께 메시지 부탁한다.

팬들이 보내주시는 열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린다.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지지를 보내주시는 대단한 팬들이라고 생각한다. 보내주시는 응원의 열기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 함께하면 무서울 것 없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뜨거운 응원 계속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촬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ROOKIE INTERVIEW

‘떠오르는 게임 체인저’ 김현서, 남은 경기 목표는 전승, 팀에 도움 주고 싶다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올 시즌 초, 김현서는 리그 3라운드 울산HD전 원정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등장했다.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으로 인천의 공격 활로를 열어주었던 그는, 경기 중반 발목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나가며 아쉬워했다. 이 모습을 본 팬들도 함께 안타까워했다. 이후 김현서는 재활을 계속해오며 꾸준히 능력치를 올리고 있고, 곧 복귀를 앞두고 있다. UTD기자가단이 준비된 미드필더 김현서를 만나보았다.

올해 프로 2년차 김현서.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면서 운동했는지

1년차 때에는 피지컬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동계(전지훈련)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몸을 만들어서 동계 훈련에 참가했다. 이때 몸 상태가 더 좋았어서 A팀에서 훈련하고 경기도 뛰었다.

고등학교와 프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가

경기장에서의 템포가 완전 다르고, 당연히 힘도 차이가 난다. 템포랑 힘이 고등학교 때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볼 차는 건 어차피 개인의 능력이니까, 템포랑 힘의 차이 두 개가 제일 크게 느껴진다.

선배들이 조언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가장 조언을 많이 해주는 선배는 누구인지, 어떤 말을 주로 해주는지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지나다 보면 적응해나가고 몸이

알아서 익숙해지니까, 운동할 때마다 이제 적응하는 것 같다. 다른 선수들의 운동 루틴을 참고하기도 한다. 내가 워밍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형들을 보면 훈련 나가기 전에 꾸준히 하니깐 이런 걸 조금씩 해봤다.

이젠 후배 선수들을 받았다. 후배들과 어떻게 지내나

(평택)진위고에서 두 명 오고 대건고에서도 왔는데, 진위에서 온 친구들은 서로 알고 지냈으니깐 친하고, 대건고 친구들과도 잘 지낸다. 가끔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보인다. 사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먼저 말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입단 동기들과의 사이는 좋은지

다 고루고루 잘 지내고 있다. 아주 친한 친구도 있고 아직은 좀 어색한 친구도 있다.

클럽하우스에서 거주하는가? 평소 생활이나 운동 루틴이 따로 있는지? 훈련 끝나고는 주로 뭘 하는가

그렇다. 지금 신인들은 클럽하우스에서 산다. 지금은 또 다쳐서, 재활할 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재활을 한다. 다치기 전에는 오전에 팀 운동하면 오후에 웨이트하는 식으로 훈련해왔다. 훈련 끝나고는 그냥 방에서 휴대폰 하거나 한다.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디 잘 안 나간다.

룸메이트는 누구인가?

최승구 선수다. (최)승구랑은 친해서 말 많이 한다.

여러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나?

고등학교 때 나는 완전 공격적으로 하는 미드필더를 봤었는데, 조성환 감독님 시절 때 3-4-3에 미드필더가 두 명이었다. 인천 축구 자체도 일단 수비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니깐 거기서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 하는 거 따라 해보면서 적응해나갔다.

선호하는 포지션은 어디인지

지금은 고등학교 때처럼 많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미드필더 선호한다.

가끔씩 벤치에 모습을 보였다. 이 경기들에서 코칭스태프가 어떤 역할을 부여했는지

명단 나왔을 때 딱히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다. 그냥 경기에 들어갈 때 훈련하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라는 말을 해주신다.

올해 초 울산 원정 (리그 3라운드)에서 선발 출장했다. 중간에 안타깝게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는데, 당시를 떠올려본다면?

원래도 경기하기 전부터 발목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다. 당시에 미드필더 선수들도 많이 다쳤다. 음포쿠가 다쳐서 뭘 사람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나한테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이제 잡아야 내가 더 성장할 것이고 가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일단 경기에 들어갔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공중볼 이후에 슈팅을 때렸는데, 맞았을 때 느낌이 딱 발목이 나가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못 뛰겠다 싶었다. 근데 여기서 나가면 아쉬우니까 그래도 질질 끌고 한 40분까지 오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안되겠다 하고 바뀔달라고 했다.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설렘이 더 아쉬웠다. 피곤했지만 잘 할 자신이 있었다.

프로에서 어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좁은 곳에서 탈압박이다. 내가 왜소하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볼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자신 있게 차고 다니고 주고받는 것이다.

최영근 감독 부임 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확실히 달라졌다. 포백으로 바뀌면서 이제 볼 소유도 엄청 많이 늘고 공격적으로는 일단 많이 하는데, 골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최영근 감독님 오시고 나서 또 바로 다쳤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공격적인 게 근본적으로 추구가 많이 되는 것 같다.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건가?

이 울산전(리그 3라운드) 후에 수술을 하고 나서 복귀를 또 울산전(코리아컵)에 했다. 그때는 관참게 경기했다. 그 후에 감독님 바뀌고 나서 훈련하다가 다시 또 수술한 쪽 부위에 근처 발목이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았다. 이제 곧 복귀할 것 같다.

최우진, 배준호(현 EFL 스톡 시티) 등 고등학생 시절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는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준호 형은 워낙 ‘넘사벽’이었다. 이 형 무조건 나중에 국가대표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맨날 준호 형 하이라이트 보고 따라 하고 흉내도 냈다. 존경하는 선수이다. 같은 에이전트 소속사이기도 하다. 준호 형을 롤모델로 삼는다. (최)우진이 같은 경우에도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좋은 모습 보여준다. 사실 저번 대표팀 명단 발표되기 하루 전에 우진이랑 나랑 (최)승구랑 놀러 가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우진이가 대표팀 명단에 뽑혀서 깜짝 놀랐다. 언젠가 대표팀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 깜짝 놀랐다.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 나도 다치지만 않았으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부러운 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가장 좋아하는 인천 응원가

‘인천은 나의 자존심.’ 들을 때 뭔가 좀 감동적이다.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한 명 기억난다. 또래 팬인데, 생일 때 축하해 주시고 케이크도 챙겨주셨다. 그게 기억이 나고,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된다.

국외에 롤모델 선수가 있다면 누구인가

한 명을 뽑기보다는, 맨체스터 시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팀 밖에 안 본다. 베르나르도 실바, 필 포든 같은 유형의 선수가 있어서 좋아한다.

현재 인천 모든 구성원의 목표는 ‘잔류’. 그렇다면 축구 선수 김현서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국가대표도 해보고 싶고, EPL(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뛰어보고 싶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준호 형이랑 우진이처럼 주변에서 국가대표를 가게 되니까 나도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어떤 이미지의 축구선수로 팬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내가 투입되면 축구가 재밌고, 골이 엄청 많이 날 것 같은 기대감을 주고 싶다.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다.

팬들에게 한마디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도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재활 거의 다 마쳤고 지금 인천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나와 형들과 모든 스태프들도 잘 준비해서 남은 경기를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저희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도 빨리 복귀해서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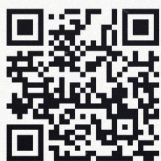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INCHEON UNITED F.C.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CAFE



인유카페에 와야하는 이유 

1. 아메리카노 2,000원
2. 인유만의 시그니처 메뉴 
3. 볼거리 넘치는 인테리어
4. 다양한 이벤트 진행
5. 포토존에서 인생샷 찍기 



운영시간 : 11~20시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인천유나이티드 카페 보러가기

P 주차안내 : 전용주차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